



금속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교섭총합
25.05.22
**교섭
속보**
VOL.5

발행 : 정진홍 | 발행일 : 2025.05.22.(목)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지부집단교섭 5차, ESG경영 도입 신설조항 제시

금속노조 장창열위원장 현장순회 후, 경주지부 교섭 참석



5차 지부집단교섭이 2025년 5월 22일 14시 부터 다스지회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오늘 교섭에는 다스 조진현 대표이사가 참석해 교섭 참가자들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으로 공급망 개편 등 변화가 매우 빠른 상황이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대표로 금속노조 장창열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

장창열위원장 교섭대표 발언으로 “20일 5차 중앙교섭이 사용자 측 교섭위원 불참으로 파행되어 무거운 마음이다” 라고 전했고 “금속노조는 올해 작업중지권을 최우선 과제로 제출해 중대재해를 막고자 한다. 작년에는 22명, 올해는 벌써 15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고 안타움을 토로했다. 이어서 “사용주 측은 안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 고 당부하며 안전속에서 노사 상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안을 제시했다.

지부집단교섭요구 중 ESG경영 도입 안에 대해 3항 중 문맥의 원활함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고 그 외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측 정진홍지부장은 “내용상 문제는 없지만 절차를 거쳐 차기 교섭에서 의견일치 여부를 알리겠다”고 의견을 제출한 뒤 교섭을 마무리했다.



< 사측 제시안 제출 >

ESG경영도입 관련 1, 2항 원안수용, 3항은 문맥의 원할함을 위해 문구 수정 후 제시.

	요구안	사측 제시안
전문	회사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ESG경영을 적극 도입하며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원안수용
1항 환경	회사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축소를 위해 국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는 회사의 지붕 및 주차장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조례가 재정될 수 있도록 공동 요구한다.	원안 수용
2항 사회	회사는 인권, 성별평등 및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한다.	원안 수용
3항 지배구조	회사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계획과 기후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 그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계획과 기후환경과 관련된 내용 및 그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교섭이 마무리된 후 장창열위원장과 노측 교섭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위원장은 5월 20일 민주노총이 중집에서 7월 총파업 날짜를 16일과 19일로 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발레오만도지회 이상수 정책부장은 위원장에게 ”완성차가 함께하는 총파업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해 달라“고 주문했고 위원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금속노조 장창열위원장은 교섭에 앞서 6.11 1만 간부 상경투쟁과 7월 총파업 조직을 위해 세진지회와 다스지회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정진홍지부장은 경주지부집단교섭에 참석하는 타지역 지회 교섭대표들과 만남을 이어갔다. 우영산업지회는 광주와 천안에서, 아이티더블유지회와 다스지회는 아산에서, 디에스시지회는 광주에서 매주 경주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